

"저기요,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치매를 다루는 드라마의 인식 부재에 관하여

김원신

들어가는 말

이성 같던 지상파 드라마가 쇠락하고, 다양한 소재를 다루는 완성도 높은 비지상파 드라마들이 제작되는 것은 시청자 입장에서 무척 반가운 일이다. 사회적 부조리나 정의 실현을 향한 목직한 울림부터 상큼 발랄한 재치가 번뜩이는 실험적인 장르까지 선택의 폭이 넓어진 것도 분명하다. 그럼에도 여전히 '가족'이나 '사랑'은 고정 시청층이 존재하는 클래식 테마다. 2019년 JTBC에서 제작, 방송된 두 편의 드라마는 이런 점에서 닮은 듯 다르기도 하고, 다른 것 같지만 중국엔 같은 접점을 갖고 있어 흥미롭다. 두 드라마 모두 '치매'를 앓는 주인공을 그리고 있지만, 그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주제 의식이나 연출의 방식에 있어 큰 차이를 보인다. 그뿐만 아니라 드라마가 그 병증, 환자, 그와 관련된 일련의

문제들을 어떤 식으로 취급하고 있는지 그 인식의 부재에 관해 알아보
고자 한다.

1. 치매라고?

알츠하이머병은 1907년 독일의 정신과 의사인 알로이스 알츠하이머
(Alois Alzheimer) 박사에 의해 최초로 보고되었고 치매를 일으키는 가장
흔한 퇴행성 뇌 질환이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기억력이 점차 퇴화하
며, 지적 기능에 심각한 장애를 유발시켜 일상생활을 어렵게 만들며 치
매증에 이르게 하는, 치매의 일반적인 원인으로 지목되는 병이지만, 대
개의 경우 알츠하이머와 치매를 혼용하기에 본 글에서는 ‘치매’로 통칭
한다.

JTBC <눈이 부시게>¹는 진부한 소재를 매우 세련되고 현대적인 감
각으로 연출한 웰메이드(Well-made) 드라마로 평가받는다. 판타지와 현
실, 로맨스와 가족의 신과를 촌스럽지 않게 오가다가, 끊임없이 의심하
고 기대하는 시청자들에게 ‘치매’라는 반전 카드를 제시하는 파격…….
노련한 배우 김혜자의 20대 연기는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고, 복잡하지
만 공을 들인 빼곡한 극본과 연출력이 더해져 찬사를 받았다. 주인공의
입을 통해 전해진 잠언들이 오랫동안 회자되기도 했다.

이와 달리 배우 감우성, 김하늘 주연의 <바람이 분다>²는 젊은 나
이에 기억을 잃어가는 가장 도훈과 아내 수진이 한 차례의 이별 후에 다

1 2019년 2월 11일 ~ 3월 19일에 방영된 JTBC 12부작 드라마.

2 2019년 5월 27일 ~ 7월 16일에 방영된 JTBC 16부작 드라마.

시 만나 사랑을 지켜낸다는 기획 의도를 표방한 작품이다. 어찌 보면 ‘치매’ 환자와 그 병증에 보다 집중한 듯 보이지만, 드라마가 가지는 서사보다는 액자에나 넣을 법한 예쁘게 포장된 장면들, 뭔가 부자연스러운 설정, 개연성이 떨어지는 구성 등으로 기대에는 크게 못 미치는 결과를 낳았다.³ 치매에 대한 피상적인 인식과 어설픈 만듦새로 공감이나 감동 대신 황당함을 갖게 했다. 예민한 소재에 대한 어설픈 접근이 아쉬운 정도를 넘어 치매를 겪고 있는, 적어도 그 병변을 지켜본 많은 이들에게 외면받았을 뿐 아니라, 비슷한 경험을 갖고 있는 가족들이나 같이 고민해야 할 사회에도 의문점만 남기고 말았다.

2. 치매를 다루는 드라마의 계보

시청자들의 기억 속에는 ‘치매’ 하면 떠오르는 드라마의 계보가 존재한다. 공전의 히트를 치며 리메이크되었던 노회경 작가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⁴은 단 이틀 동안 방송된 창사 35주년 특집 드라마다.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희생적인 주부의 이야기였음에도,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김영옥 분)의 쾌약 연기가 강렬하고 사실적이어서 오랫동안 기억되는 작품이다. 시대가 흘러 젊은 나이에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경각심이 제기되었고, 30대 워킹 우먼의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다룬 김수현 작가의 <천일의 약속>⁵이 등장했다. 젊고 아름다운 출판 기획 전문가인

3 7월 16일 마지막 회 시청률 3.816%(닐슨코리아, 2019년 7월 16일 종합 편성 기준).

4 1996년 12월 2일 ~ 12월 3일에 방영된 MBC 드라마.

5 2011년 10월 17일 ~ 12월 20일에 방영된 SBS 드라마.

주인공과 그녀를 지키려는 남자의 지고지순한 사랑에 포커스가 맞춰졌지만, 기억을 잃어가는 과정과 가족들의 고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2016년에 화제가 되었던 <디어 마이 프렌즈>⁶는 황혼 청년들의 인생을 그린 드라마로 여러 주인공 중에 치매를 앓기 시작하는 인물(김혜자 분)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이 크게 부각되지 않은 채 드라마는 끝을 맺었다.

그렇다면 2019년에 JTBC에서 제작된 두 드라마는 기존의 작품들과 어떤 차별성을 갖고 있는가. 이전의 작품들이 치매의 병증과 그 고통, 가족의 붕괴를 드라마 전면에 배치했다면, 이 두 작품은 힘겨운 일상을 초월한 메시지를 남기려고 노력한 점이 무엇보다 돋보인다. 개인이, 한 가족이 무너지는 과정을 그려내는 것만으로도 드라마는 버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고, 다큐와 픽션의 경계에서 머뭇거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환자 본인이 겪는 끔찍한 고통, 가족 구성원의 갈등 대신 다분히 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신선함은 좋았지만 치매를 도구로만 삼다 보니, 드라마가 낭만적이다 못해 극히 가식적이다. 픽션이니 상관없지 않을까, 다큐가 아닌 이상 뭐 어땠겠는가라고 묻는다면, 단호하게 그래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치매’라는 질환은 현실에서 ‘극단적인 절망감’으로 경험된다. 병증은 확실하지만 낫는다는 보장이 없는, 의학적인 치료도 별 효용이 없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불행’이다. 또한 가족 구성원 전체가 치러내야 하는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일종의 ‘재앙’이기도 하다. 사회가 미리 준비하지 못한 사이, 수없이 많은 이들이 이런 불행을 개인적 차원에서 책임지고 고통스러워했다. 그렇다면 적어도 디테일에 있어 부족

6 2016년 5월 13일 ~ 7월 2일에 방영된 tvN 드라마.

한 면이 있더라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 고통이 현재진행형인 사람들에게 전해질 부정적인 영향쯤은 고려했어야 하지 않을까.

3. 진실 같은 거짓, 현실 같은 허구

‘치매’는 여전히 개인적인 불행의 영역에 머물러 있으며 집안 내에서 가족들끼리 해결해야 하는 부양과도 연관되어 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에서 말기 암에 걸린 며느리가 치매에 걸린 시모를 잡고 나보다 먼저 죽어야 한다고 오열하는 장면은 사회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을 때 가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예다. 개인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선다는 경험들이 축적되면서 사회보장 시스템으로 끌어들이야 한다는 인식이 커지고는 있지만, 병증의 증가 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현실은 더딘 것도 사실이다.

<눈이 부시게>는 장애를 갖게 된 아들과 힘겨워하는 며느리, 좌절하고 방황하는 청춘, 쓸쓸한 노년 등 소위 인간 군상의 다층성을 보여준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자신의 상처 안에 깊숙이 박혀 있던 심리를 디테일하게 포착하고 다양한 감정선을 끌어내면서 극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감에 이르렀다. 또한 장르상 타임 슬립의 로맨스 판타지가 주는 신선함과 거듭되는 반전 등으로 뼈거덕거리는 개연성은 크게 문제되지 않았다. 첫 회 시청률 3.2퍼센트로 시작했던 드라마가 8회를 맞아 8.4퍼센트까지 이르렀으니 시청자들도 서사의 앞뒤를 꿰맞추고 이해하느라 분주해서 주인공 캐릭터 자체의 모순성에는 크게 집중하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다.

그렇다면 드라마 안에서 치매에 걸린 노년의 현실은 어디에 있는

가. 복지관에 모인 노인들이 자신들을 이용해 보험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려는 조직들을 상대로 기지를 발휘해 물리친다는 진실 같은 거짓을 아주 그럴싸하게 보여준다. 주인공은 장성한 아들과 며느리, 방황하는 손자·손녀를 시간을 넘나들며 위로하고 보듬는다. 집에서도, 복지관에서도 치매로 상징되는 노년의 삶은 큰 말썽을 일으키지 않는다. 타임 슬립이라는 형식이 한 가정의 우울하거나 절망적인 서사를 철저히 감추는 매우 영리한 기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주인공의 과거 삶이 현재진행형으로 그려짐으로써 정서적 공감대가 커진 것도 큰 수확이다. 연출의 테크닉과 메시지의 서정성이 훌륭한 배우를 만나 작품성을 높이기까지 했다. 그럼에도 그 화려함 뒤에 남은 의문점이 있었다면, 굳이 왜 ‘치매’라는 장치를 사용했을까이다.

〈바람이 분다〉는 어떠한가. 샐러리맨 도훈은 알츠하이머라는 판정을 받고 아내 수진에게 알리지 않은 채 갈등을 겪다 이혼한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안 수진이 아이를 홀로 낳아 기르는 사이, 도훈은 연락이 끊겼던 아버지 유산의 일부를 상속하고, 친구 향서의 도움으로 시골에 거처를 마련해 요양 보호사와 생활하며 딸과 아내를 위한 수제 초콜릿 제작에 몰두하는 동시에 전 재산을 수진에게 양도할 준비까지 한다. 결국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수진과 재회, 주위의 우려에도 재결합한다는 내용이다.

치매 환자가 여전히 가족 안에 머물며 온갖 갈등을 유발하는 기존의 드라마와는 달리, 스스로 분리와 결별을 결정하는, 스스로의 존엄을 선택함으로써 자존감을 지키려 했다는 점에서 매우 신선했다. 본인에게도 가족에게도 그리 나쁘지만은 않은 결정이었기에 이후의 전개가 흥미로울 터였다. 그러나 그렇게 남은 가족을 배려하고 스스로 분리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절차와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는지, 과연 그것이 현

실적으로 어느 정도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도 없다. 스스로 살아가기 위한 모든 경제적인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는 어마어마한 상속재산, 복잡한 일 처리를 대신해 주며 끝까지 곁을 지키는 친구 형서, 성실하고 믿음직한 간병인과 그림 같은 전원주택쯤은 고민의 대상이 아닐 뿐 아니라, 치매의 병증은 생각보다 더디게 진행된다. 선택적인 기억력이라는 매우 희귀한 케이스라고 의사가 설명하는 장면은 코믹하기까지 하다. 기억을 잃어가면서도 두 번 사랑에 빠지는 남자와 그런 사람과 함께하고자 하는 여자의 슬프도록 아름다운 이야기를 그리고자 했다는 기획 의도를 완성하기 위해 디테일과 개연성쯤은 가볍게 무시된다. <바람이 분다>는 소개 첫 줄에서 “인생은 아름다운가”라고 묻는다. 모든 걸 다 잃을 때까지 손에 꼭 쥐고 있는 단편의 기억, 죽어도 놓지 못할 딱 하나의 바람 그 소망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슬퍼도 아름다운 삶이라는 취지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시청자로선 난감할 뿐이다.

4. 남아 있는 이들을 위한 변명

치매는 기억을 잃기만 하는 병이 아니다. 자칫 ‘기억’을 ‘추억’으로 치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 치매는 일상생활의 기본적인 수행 능력까지 잃는 병이다. 마치 모든 인간관계와 추억을 잃고 아이처럼 순백의 기억력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것처럼 묘사되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자신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충격과 불행쯤으로 여기는 편리함은 다분히 만드는 사람들이 믿고 싶은 판타지다. 노화라는 과정에서 당연시되는 생활의 더딤, 건망증과 구별하지 못하는 인식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다. 더군다나 치매에서 나타나는 각종 합병증과 병증

의 진행은 그리 상식적이지 않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가족 안의 문제에서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사회 시설로의 격리를 패륜이나 부도덕한 것으로 인식하는 시선도 존재한다. ‘예쁜 치매’라고 불리는 경우가 드물게 존재하지만, 실상은 누군가 곁에서 모든 일상을 보살피 줘야 한다.

주인공 도훈에게 치매는 그 가족에게 어떤 불편함을 주고 있는가. 오로지 그의 직계가족인 수진과 아이만이 그 고통으로부터 배제되어 있다. 오히려 친구가, 간병인이 그의 가족 역할을 하면서도 싫은 소리 한마디 없다. 기억에 너무 친착한 나머지 드라마는 모든 현실을 도외시한다. 극이 중반으로 가면서 저런 치매라면 뭐가 문제일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병원에 입원한 도훈은 전등을 수시로 끄고 다닌다. 외로운 나머지 가족을 기다리는 환자에게서 발견되는 행태라는 간호사의 말을 듣고 수진은 그를 병원에서 데리고 나온다. 치매 환자에게서 겨우 ‘그리움’이나 ‘외로움’을 포착하고 힘겨워한다. 시설이나 병원에 수용되었을 때, 많은 치매 환자들은 낮은 환경에 대한 공포로 인해 난폭하게 행동하거나, 일상을 거부한다. 도훈처럼 가족에 대한 사랑을 꼭 붙잡고 자신을 철저히 노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기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사랑이나 집념의 크기 차이가 아니란 것이다. 그걸 넘어서는 병증이 마치 가족을 지키려는 사랑이나 의지로 극복 내지 지연이 가능한 것처럼 왜곡되어 버렸다.

이 두 드라마는 치매 환자를 위로하거나 아픔에 공감하는 대신 남아 있는 이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강요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야’ 내지는 ‘그렇게 말해줘’라는 강한 기대감이 의도된 것처럼 보인다. 남아 있는 이들을 위해 추억이 되어야 할 의무라도 있는 것처럼 조급하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현명해지고 삶을 달관하게

되는가. 복지관의 노년들은 여전히 자식들과의 관계에 천착한다. 늙고 병들어 관한 문제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여전히 방관한 채, 카메라는 남아 있는 자들에게 기억될 것처럼 희생적인 부모의 모습들만을 쫓는다.

〈바람이 분다〉에서 치매 환자를 돌보는 문제는 가족에게서 친구와 간병인에게로 온전히 옮겨 갔을 뿐이다. 결국 치매는 누군가의 헌신적인 희생과 물질적인 보상 없이는 어찌해 볼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오히려 확증해 버리고 말았다. 또한 사랑하는 가족이 있었음을 상기시키고 추억을 강제 소환해 환자 자신보다는 스스로를 위안하기에 바쁘다. 그러나 치매를 앓게 되는 과정 어디에도, 또는 그를 지켜보며 보살펴야 하는 이들의 삶 어디에도 함께했던 추억을 더듬어갈 여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하루하루 맞닥뜨리는 현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 추억은 상처 나기 마련이다.

치매는 기억력 상실로 오해되지 않아야 한다. 함께 좋은 기억을 공유할 수 있다는 환상 대신에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했을까를 고민했다면 어땠을까. 시청자들의 공감의 ‘나라면 어떻게 할까’에 까지 이르렀을 때 보다 구체적이고 진지한 접근을 했어야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방법들도 있구나, 저렇게 하는 것도 괜찮겠네’, 아니면 ‘맞아, 힘든 일이지’ 정도의 동의라도 구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상속받을 재산도, 분신 같은 친구도, 일만 생기면 나타나 해결해 주는 변호사 지인도 없는 사람들의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했어야 한다. 선택할 수 없는 삶, 어떻게 살기를 궁리하기 전에 들이닥친 불행을 맞닥뜨렸을 때의 현실적인 문제들을 외면한 드라마는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겼다.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환자를 통해 젊은 시절의 기억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충고를 아끼지 않는 잔인함이 느껴져 드라마를 편히 볼 수가 없었다. 기억과 감정만을 공유하고자 하는 가족, 〈바람이 분다〉와 같은 경우, 일반

가정에서라면 <태풍이 왔다>로 그리고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로 구현되었을 것이다.

맺음말

드라마를 보면서 시청자는 많은 감정을 공유한다. 화나고, 슬프고, 기쁘고, 벽차고, 통쾌하고 씩씩하고……. 이번엔 적지 않은 상처를 입은 느낌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일 수 있지만, 상식적인 차원에서도 동의되지 않는 드라마는 사회적인 공기로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유한한 삶에서 사랑의 의미,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화두를 던지고자 했다면, ‘치매’라는 장치는 지나치게 허술했다.

드라마를 보는 내내, 좀 더 잘 대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과 원망이 너무나도 씩씩하게 남았다. 도훈이 요양하기 위해 이사 간 시골길을 해맑게 웃으며 이웃들과 인사를 나눌 때, 만나면 경계하는 눈빛으로 쏘아보며 독설을 날리던 치매를 앓던 부모가 생각났다. 몇 번씩 옷을 버려도 늘 웃으며 해결해 주는 간병인을 보며 어디서든 부담스러워했던 골칫덩어리로 살다 간 가족이 생각나 괴로웠다. 서로 자신이 책임질 거라고 나서는 도훈의 친구와 아내 수진의 다툼을 보며, 가족회의를 하면서도 아무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서로의 눈치만 보고 있었던 부끄러운 기억에 얼굴이 달아오르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선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그럴 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사는지, 사회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찾지 않은 채 드라마는 진행되고 끝이 났다. 아름다운 기억을 좇으라고, 바람 정도로 지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말이다. 드라

마는 다큐가 아니다. 픽션이다. 하지만 뼈대를 이루는 디테일들이 사실이나 현실에 기반하지 않을 경우, 조롱거리가 되거나 외면받기 십상이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TV 속 세상의 정보나 이야기를 현실에 적용하거나 견주며 살아간다. 그래서 때로는 매우 유용한 도구이기도 하지만 역으로 현실의 세상을 더욱더 비참하게 만들기도 한다. 불특정 다수에게 뿌려지는 드라마가 단순히 글 속에 갇히거나 미학적 완성도만을 좇기보다는 공적 기제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제작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화려해지는 영상 테크닉과 하드웨어의 발전만큼 사람 사는 현실의 땅 위에 발을 딛고 그 위에 거대한 서사를 쌓는 드라마들이 제작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좋은 방송을 원하는 시민으로서 누군가의 소매 끝을 잡고 나지막한 소리로라도 말해주고 싶었다. ‘저기요, 그거 그렇게 아름답지 않아요. 저희도 노력했어요’라고……. 그리고 질병에 갇혀 있는 누군가의 등을 두드리며 안아주고 싶었다. ‘괜찮아요, 지금 그대로라도 괜찮아요’라고…….